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3월 2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3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3. 22(수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유법민 과장(044-203-5360)	담 당 자	김태우 사무관(044-203-5363)

"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" 논의

- 「에너지신산업 업계·금융계·학계 간담회」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**은 3. 23.(목) 에너지신산업 업계·금융계·학계 간담회를 주재하고, "**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**"을 논의했다.

< 간담회 개요 >

◇ 일시 / 장소 : '17. 3. 23(목) 07:30~09:00 /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(서울)

◇ 참석 : 산업부 차관,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, 한화큐셀코리아, LS산전, LG전자, 포스코, 에스에너지, 수출입은행,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, 에공단, 에경연, 한전 등 15명

□ 우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**기업들의 투자가 확대**하고 있고 **국내 보급도 가속화**되고 있다며

○ "작년에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총 11조원 이상이 투자됐고, 올해는 이보다 25% 증가한 **총 13.8조 원의 투자가 예상**된다. 전기차는 지난해 **6천대 가량이 판매되어 누적 보급량 1만대를 돌파**했고, 에너지저장장치(ESS)도 **225MWh**로 전년대비 50% 가까이 증가했다." 라고 말했다.

□ 또한, "올해는 그간의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수출로 확대되어야 할 시기로, **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**으로,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**공기업**, 기술력이 있는 **민간 기업**, 자금력이 있는 **금융기관**이 **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동반 진출**해야 한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**한국전력**은 세계적인 연결망을 활용해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고, 화력, 원자력 등 기저발전의 해외 수출시에도 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**연관 신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,**

○ **민간기업**은 지속적인 **기술개발**을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,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**비즈니스 영역을 넓혀나가야 하며,**

○ **금융기관**은 프로젝트 실사, 금융자문, 금융주선 등을 통해 **에너지신산업에 적합한 투자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**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.

□ 이후 발제에서, **한전**은 **글로벌 에너지트렌드**가 **화력·원전 중심**에서 **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신산업으로 이동**하고 있다고 설명하며

○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마이크로그리드(페루, 에콰도르 등), 지능형 계량기(AMI; 이란 등) 등의 **해외사업에 대한 후속사업 발굴**과 함께 **신규 사업 수주 시 국산 기자재 조달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**에 역점을 두는 한편,

○ **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개발, 마케팅**(수출촉진회, 해외전시회 개최 등) **및 판로개척**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

□ 이어 **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**는 올해 7월 준공예정인 **일본 홋카이도 '태양광+에너지저장장치(ESS) 프로젝트'**는 한전의 사업개발, 민간기업의 시공/정비(EPC/O&M),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13개사의 협력 성과라고 소개하며,

○ 개별진출이 아닌 각자의 장점을 살린 **팀으로 진출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**되며, 아울러 **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, 수출보험 등의 지원도 강화**를 주문했다.

○ 특히, **개발도상국**은 인구증가와 중산층 확대로 **잠재수요가 증가**하고 있으며,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**발전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**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참석자들은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가 융합·연계되는 **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**에서 **에너지신산업이 핵심적인 역할**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.

○ 특히 우리나라의 **제조업·정보통신기술(ICT) 분야의 강점**과 한전 등 **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업 역량을 바탕**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**4차 산업혁명을 선도**하고, 이를 **해외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**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○ 이를 위해 **과감한 규제완화**와 연구개발(R&D), **실증사업 등의 집중 지원**, 해외진출 및 금융투자 등의 협력을 위한 **융합 플랫폼을 활성화**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.

□ 우 차관은 그간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에너지신산업은 **태양광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전기차 등 3대 품목 중심으로 수출산업화가 진전**되고 있으며, 올해는 이들 품목의 더 많은 수출을 위해 **업계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**이라고 말했다.

○ 이와 함께, 올해는 첫째, **태양광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전기차 등 3대 수출품목** 외에도 **풍력,** 지능형 계량기(AMI) **등으로** 수출**품목을 확대**

○ 둘째, **국제적 에너지 환경**이 기존 화력·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신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**수출대상국가**도 **아시아·중남미 등 개도국 중심에서 유럽·미국 등 선진시장으로 확대**

○ 셋째, 단품위주의 수출에서 나아가 **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품목과 정비(O&M)를 묶음화한 종합체제 수출이 필요**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, 민간기업, 금융기관이 함께 **동반진출**

- 특히, **국내 유망 중소기업에게도 해외 투자실적(트렉레코드)을 확보**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3. 16. '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' 후속 조치로, **에너지신산업 패키지형 해외진출 추진**을 위한 **「팀 코리아(Team Korea)」 실무작업반**을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태우 사무관(☎ 044-203-5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「에너지신산업 업계·금융계·학계 간담회」 개요

□ 주제 :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

□ 일시·장소 : ’17. 3. 23(목) 07:30～09:00 (조찬),
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카멜리아룸(2F)

□ 참석 : 산업부 차관, 학계, 업계, 금융계, 연구·지원기관 등 12명

구 분	소 속	성 명		비 고
정 부	산업통상자원부	우 태 희	차 관	
지원기관	에너지공단	강 남 훈	이사장	
연구계	에너지경제연구원	박 주 헌	원 장	
공기업	한국전력공사	유 향 열	부사장	
학 계	서울과학기술대학교	유 승 훈	교 수	
업 계	한화큐셀코리아	차 문 환	대 표	태양광
	LS산전	최 민 구	전 무	시스템
	LG전자	정 창 석	전 무	ESS
	포스코	안 윤 기	상 무	시스템
	에스에너지	홍 성 민	사 장	태양광
금융계	수출입은행	김 영 기	단 장	
	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	최 규 동	본부장	전력신산업펀드

□ 세부 일정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07:30～07:33	03′	· 인사말	산업부
07:33～07:53	20′	· 발 제	
		① 에너지신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방안	한 전
		②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전략	서울과기대 유승훈교수
07:53～08:58	65′	· 참석자 토의	참석자
08:58～09:00	02′	· 맺음말	산업부